용성조사 유훈 10사목은 '법계연기론'

"사법계가 생활에서 현실로 이뤄질 때 사바세계는 해탈의 세계를 성취한다"



■ 화정스님은

부처님을 부촉한 제 1세 마하가섭에서 시작해 중국 제28세 보리 달마대사, 고려말 태고보우조사로 이어진 석가여래부촉법은 제 68세 용성진종조사, 제69세 동헌완규대사, 제70세 불심도문 스님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불심도문 선사는 명법사 회주 화정스님을 제71세 부촉제자로 인가하고 그 법을 전했다. 앞서 화정스님은 용성조사장학재단을 설립해 학인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으며, 명법사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꾸준하게 복지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업은 국내 뿐 아니라 국제구호활동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계불교비구니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님은 또 대만 제원사에 1억원의 불사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군포교를 위해 계룡대 홍제사 건립기금 1억원을 쾌척하고, 용성조사의 삶을 기록한 소설 〈25+10=X〉 발간과 〈용성평전〉 독후감 공모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와 인연의 씨앗을 심고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불교의 수행 전통을 지켜내며, 사회적 실천을 제시했던 용성진종조사 오도일(음력 8월 29일)을 맞아 용성조사대원명법사실천회(이사장 화정스님 · 평택 명법사 회주)가 용성조사의 유훈 10사목을 되새기며 사회적 회향을 선포한다. 오는 9월 24일 오전 10시 명법사에서 봉행되는 '용성조사 오도(悟道) 136주년 봉찬대재(奉贊大齋)'를 앞두고 화정스님에게 그 의미와 실천행에 대해 들었다.

명법사실천회 이사장 화정스님은 "대승불교의 진리는 수행을 통한 깨달음과 이를 실천하는 데 있다"며 "용성조사는 유훈 10사목을 통해 나와 중생이 일치되는 실천을 강조하셨다. 소승불교 수행은 삼불능을 어찌 할수 없다고 하지만 대승불교의 자비수행에는 삼불능도 없다. 용성조사의 깨달음과 유훈 10사목은 바로 이런 보살정신의 정수다"라고 강조했다.

삼불능은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께서도 3가지는 못한다는 내용으로, 첫째 불능면정업중생(不能免定業衆生, 자신이 지어서 정해진 업보는 면할 길이 없다), 둘째 불능도무연중생(不能度無緣衆生,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셋째 불능진중생계(不能盡衆生界, 일체 중생을 한꺼번에 다 제도하실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화정스님은 불교의 수행이 개인적 깨달음을 기반으로 무릇 중생을 향한 요익중생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승불교에서 삼불능은 없다. 용성조사의 유훈 9사목과 10사목은 이런 가르침이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첫째로 개인이 지은 업보를 사회와 공동체의 선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일예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극심한 빈곤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모여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이어지는 점을 지적한다. 사회의 공업으로 개인의 악업을 멸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 내는 것이 대승불교의 수행정신이라는 요지다.

둘째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는 것은 불교인의 관점이라고 지적한다. 다수의 종교는 선연의 공덕을 지으라는 가르침을 전한다.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는 것은 불교나 여타 종교나 다르지 않다. 공덕 인연이 쌓여 다음 생에는 진리(불법)를 접할 인연으로 이어지게 된다.

명법사실천회 이사장 화정스님 통해
용성조사의 수행과 실천을 되새기다
용성조사 오도 136년 봉찬대재 봉행

노숙자에게 무료급식을 하면서 종교를 가리지 않고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불교의 사회복지는 무릇 중생에게 선업의 인연을 쌓아 결국은 불법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을 지어주게 된다.

셋째 중생이 지은 업과 복이 서로 달라 한꺼번에 제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용성조사께서는 유훈 10사목을 통해 전 인류를 대상으로 포교하고, 수계의 인연을 맺으라고 전했다. 선한 이나 악한 이를 가리지 말고 그 근기에 맞춰 모두 성불인연을 지으라는 가르침은 곧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큰 서원이다.

"내 욕심을 버리면 더 큰 우리의 이익이 온다"는 스님은 "불교가 사회복지를 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사법계 상품(上品) 수행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어떠한 보살행, 즉 사법계 수행이 대승불교의 실천일까. 법장당 화정스님은 현대 사회의 포교 모습 가운데 몇가지를 꼽았다.

대중스님이 모여 선원과 승가대학 등에서 수행하며 진리를 함께 찾아가는 것이 사법계의 상품(上品)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2700년 이어온 조사와 선지식, 그리고 사부대중의 수행 공간을 마련한 창건주 모두가 상품이다.

화정스님은 "상품은 이사 수행을 한 선지식 뿐 아니라 수행의 힘이나 포교 원력으로 사법계 실천을 한 모든 사부대중 모두가 상품이다"고 말했다.

바르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우리의 이익,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한 실천적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이 또한 상품의 품성을 지니고 있다.

스님이 말하는 이들의 특징은 '요익중생(饒益衆生)' 즉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해 사는 이타의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이다. 스님은 "왜 우리가 불교를 찾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가. 바로 세상 모두가 함께 이익되기를 바라는 대승의 정신이 바로 요익중생이며, 부처님 가르침이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화엄경에서는 법계를 첫째 모든 차별되는 개체로 구성된 현상계를 의미하는 사법계, 구별되는 개체속에서 일관되게 내재돼 있는 원리, 법칙 등 진리를 의미하는 이법계로 구분한다. 하지만 이사법계는 따로 떨어진 현상이 아니라 상호 관계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를 이사무애법계라고 한다. 끝으로 사사무애법계로 설명되는데, 이는 개체와 개체마저 서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통합된 관계를 의미한다.

화정스님은 "결국 이법계와 사법계는 불이(不二)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며 "보현행이 곧 불이사상에 근거한 이타행이다. 이 가르침을 현대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 용성조사 10사목의 유훈이고,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다.



석가여래부촉법 제70세 불심도문 선사로부터 가사와 발우를 전달받고 있는 화정스님.

용성조사 유훈 10사목

용성조사께서 열반에 드신 후 49일재를 봉행한 뒤, 상좌인 동헌완규 조사가 밀봉함을 뜯어보니 용성조사가 제자들에게 당부한 유훈 10사목의 내용이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야불교 초전법륜 폐허성지를 잘 가꾸어라.
2. 고구려불교 초전법륜 성지를 잘 가꾸어라.
3. 백제불교 초전법륜 성지를 잘 가꾸어라.
4. 신라불교 초전법륜 성지를 잘 가꾸어라.
5. 신라고도 성지 금오산과 진산인 낭산을 잘 가꾸어라.
6. 호국호법도량 신라 금오산 고위산 천룡사지(天龍寺址)를 잘 가꾸어 수도발원 교화도량의 언덕으로 삼아라. 그리고 여력(餘力)을 몰아 불타탄생성지 네팔 룸비니원과 불타성도성지 인도 보드가야 보리수원과 불타초전법륜성지 인도 바라나시 녹야원과 불타장구주석성지 인도 쉬라바스티 기원정사와 불타입멸성지 인도 쿠시나가르 사라수원을 잘 가꾸어라.
7. 불경(佛經)과 어록(語錄)을 백만권(百萬卷) 넘도록 발간 유포(發刊 流布)하라.
8. 3귀의 5계 수계법회를 통해 수계자가 1백만이 넘도록 할 것이며, 이 수계자에게 아들이나 내지 손자대나 증손자대에 가서 한 아들이나 한 손자나 한 증손자를 잘 낳아서 잘 길러서 잘 가르쳐서 부처님전에 출가 봉공케 하라.
9. 밖으로 온 겨레, 전 인류, 만 중생과 성불인연(成佛因緣)을 지으라.
10. 수행은 비묘엄밀(秘妙嚴密)하게 하고 교화는 중생의 근기를 따라하되 악(惡)한이나 선(善)한 이를 가리지 말고 모두 다 수용해서 〈묘법연화경〉 제20 상불경 보살품(妙法蓮華經 第二十 常不經 菩薩品)의 상불경보살의 수행을 본받아 성불인연(成佛因緣)을 지어나가라.

용성조사 오도 136주년 봉찬대재

용성진종조사 오도일을 맞아 용성조사대원명법사실천회에서는 조사스님의 업적과 수행을 기리고, 유훈 10사목을 실천하는 삶을 사부대중과 함께 서원합니다.

이날 법회에서는 세계 법계연기론 사법계 불사의 일환으로 미얀마 국민 지원금을 전국비구니회에 전달합니다.

일 시 9월 24일 (토, 음력 8월 29일) 오전 10시
장 소 명법사 불교회관 대법당
주요내용 용성조사 다례재
미얀마 지원금 전달식(전국비구니회)
'과학과 불교' 박문호 박사 축사

| 주최 · 주관 | 용성조사대원명법사실천회

